

□ 주제 발표 논문

구약의 지혜자를 통해서 본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안경승(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2003년 여름에 개최된 CAPS(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학술세미나는 현금 미국 기독교상담학계의 통합의 경향을 시사해 주는바가 있었다.¹⁾ 발표된 5편의 주제 논문과 80여편의 소논문들 가운데 25% 정도가 영적 훈련과 기도 등의 영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상담 사역과 영성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내용이었다. 통합의 종류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포괄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해 볼 때, 실제적 통합에 대한 논문이 35%에 달하였고, 순수한 이론적 통합에 대한 연구는 20%, 그 밖의 상담윤리나 실증적 연구를 다룬 논문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²⁾ 고무적인 사항은 적잖은 학자들이 기독교적 자원들을 그들의 상담 기술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담사역의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독교상담자들에게 있어서 통합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아쉬운 것은 복음주의적 신학에 근거한 이론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졌다는 점이다. Eric Johnson 과 Stanton Jones이 지적하였듯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학술단체의 성격

이 실제로 그 뿌리에서 이탈해서 점차 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닌가 생각한다.³⁾

본 논문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의 기독교와 심리학의 이론적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약의 지혜자를 통해서 본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의 과정과 그 한계를 살펴본다. 그동안 토의 되어온 통합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 이론적 통합의 영역을 구약의 지혜자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정한다.⁴⁾ 특히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 기독교상당자가 추구해야할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통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고 열어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심리학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계시를 통해 전달된 진리를 인정하는 정도와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한 통합의 내용 역시 이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적 산물을 대하는 학자들의 세계관과, 일반계시를 드러내는 진리로 심리학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통합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⁵⁾

지혜자의 증거가 담긴 지혜문서는 성경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진리와 이를 위한 예언적인 말씀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지 않다.⁶⁾ 그러나 인간 존재와 관심사에 대해 지혜자는 풍성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그 때 당시에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고민했던 이들이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갖고 있던 그들의 신학에 맞도록 그것을 조정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지혜의 말씀들이다. 지혜자의 사역에는 성속(成俗)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지혜자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화와 학문을 통해서 전해준 지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II. 펴는 글

1. 관점에 따른 통합의 분류

상담학자가 하나님의 일반계시를 보는 입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다시 말해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세계관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신념의 구조 내지 틀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자신의 소명과 미래까지 조망한다. 이 관점은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신념에 대해 방향성을 제공한다. 질서와 혼란을 분별하는 통합과 해석의 틀이 되고 현실을 조정하고 추구하는 기준이 된다. 더불어 매일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어떤 방향을 갖도록 하는 구심적 역할을 한다. 이 안목은 대개의 경우 별로 반성하거나 의문시하는 것 없이 내면화되어 있고 문화와 역사적 발전에 따라 다시 개정되어진다.⁷⁾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 속에 문화를 어떤 모양으로든 반영하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주장들, 전제들, 또는 통제적 신념들은 보통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고,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에 적용해 볼 때에도 과학적 연구과정에 이런 관점이 담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⁸⁾

표 1에서는 이런 관점의 차이에 따른 통합의 입장을 분류하기 위해서 Niebuhr의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분류와 통합 유형을 대비하였다.⁹⁾ 이 표에 등장하는 구분과 이를 대표하는 학자들은 최근에 나온 통합 관련 서적인 *Psychology and Christianity: Four Views* 와 Eck와 Wyk의 논문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¹⁰⁾ 표상의 또 다른 세계관의 차이는 시대사조(Zeitgeist) 또는 시대 정신에 따른 것이다. 즉 전통적(traditionalism), 모더니즘(modernism),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적 입장에 따라서 통합의 방향성을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측면에서는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리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전통적 입장은 세대를 통해 전해져 온 신앙적 자원인 신학과 성경, 그리고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에 중심을 두고 있다. 현대적 입장은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이 강조해온 이성과 과학, 그 중에서도 과학적 방법과, 과학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공해 주는 정보들에 가

치를 두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통합 분류 방식은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데 Olthuis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과학적 방법의 전제를 비평하고 있고, 인간 체험의 다양성과 특히 소수의 음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Olthuis의 경우 체험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단일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¹¹⁾ Eck는 정확하게 대비되지 않지만 Niebuhr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Carter와 Narramore의 연구를 근거로 신학과 심리학에 대한 이론적 통합의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¹²⁾ 그가 제시하는 통합에 대한 5개의 기본적 분류는 거부(reject), 재구성(reconstruct), 변혁(transform), 상호관련(correlate), 단일화(unify)로서 심리학적 입장 또는 신학적 입장이나에 따라 같은 유형 안에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 참고). 거부 유형에서는 심리학 또는 신학이 다른 편의 인식론적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구성 유형은 자연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방법론적 주제들 또는 인문과학으로서의 신학의 형이상학적 요소가 서로에게 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제거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변혁 유형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적 도구를 통해서 신학을 읽거나 신학의 관점을 통해서 심리학을 읽어서 변혁해야 할 필요성을 말한다. 상호관련 유형에서는 두 학문이 그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존중할 만한 대상인 상대로부터 서로 배우는 것이다. 단일화 유형에서는 개인적 체험에 근거해서 심리학과 신학을 둘 다 포함하는 진리의 형이상학적이고 개인적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의 두 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문화적 산물에 대한, 더불어 그 문화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일반계시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서 통합이 유형화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일반계시를 강조하는 이들은 심리학적 방법들과 원리에 대해서 수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근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들어와서 삶의 체험에 근거한 진리를 원리로 수용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변혁적 유형을 취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서 심리학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심리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익한 점이 있지만, 이런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전제들에 대한, 더 나아가

서 심리학을 주도한 학자 개인의 동기와 세계관에 대한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¹³⁾ 일반계시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작업이 특별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대립적 견해를 가진 비통합적 유형은 일반계시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 죄로 오염된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계시의 분별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는 영적 지혜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놓고 있다(골 1:9-10). 그렇다고 해도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이 전해주는 연구의 산물보다는 기독교적 인간관에 근거한 성경적 심리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구약의 지혜자와 통합

지혜는 질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지혜롭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문서와 성경의 지혜의 말씀들은 인간의 삶이 혼란에서 질서로 옮겨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과 구성요소로서 지혜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정신적 건강,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갱신을 위한 온전한 질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구약의 지혜자는 이 질서의 근원으로 창조 질서에 초점을 맞추었다. 원인과 결과를 관찰했고 이를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인간의 삶과 온전함을 위한 유용한 가르침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장 뚜렷하고 온전한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화 되신 예수님과 그 분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계시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지혜자의 역할을 추적하기 위해 구약의 지혜자를 생각해 본다.

1) 지혜자를 통해서 본 통합의 과정

구약의 지혜자는 여호와 안에서 복되고 질서 있는 삶을 누리며 사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의 원천으로서 두 가지 자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첫째, 피조물의 삶의 원리와 특별히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의 형태로 계시되는 자원이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특별계시라고 칭하고 있다. 이 점은 논문의 후반부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둘째, 지혜자는 세상 만물 속에 자연의 법칙과 같은 구조가 있음을 분별하고 이를 자원으로 삼았다(시19:1-4).¹⁴⁾ 지혜자에 의해서 남겨진 구약 지혜문서들이 근동 지역의 다른 문서들과 비슷한 일면이 있고, 금언과 격언의 형태로 매일의 삶의 지혜를 인간의 관찰과 체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계시에서 추론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¹⁵⁾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세상을 운영하는 밤과 낮의 약정은 규정(fixed order)되어서 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33:20-21, 25; 31:35-36). 여기서 밤과 낮의 “규정”(huqqim)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자체나 그 “율법을 새긴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이다. 이 단어는 욥기 19:23과 이사야 49:16에 표현된 “씩어졌으면”(to inscribe) 또는 “새겼고”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이다. 또한 “지나치지 못하는 계한”을 삼았다는 표현과도 같이(렘 5:22), 하나님께서 입법자의 위치에서 새겨 넣은 규례(decree)를 표현하는 것이다(레 18:3-4; 출 12:17; 민19:2, 31: 31).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하늘과 땅에 내재된 하나님의 규정이 온 우주를 인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¹⁶⁾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주에 내재된 질서 구조는 자연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 자료이다. 세상 만물의 각 각의 정한 때와 고정된 패턴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가져다준다. 지혜자는 모든 자연 현상을 근본적으로 주도하는 이 질서를 연구했고 자연과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묵상해서 지혜의 원리로 삼았던 것을 보게된다.¹⁷⁾ 이런 의미에서 지혜문서는 세상의 구조들 속에 녹아있는 우주적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체가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인과 원리적 법칙을 있게 만든 장본인이 된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

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잠 3:19-20)라고 표현하고 있다.¹⁸⁾ 잠언 8장은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현을 담고 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인격화해서 표현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원인과 결과와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잠 8:2-31). “또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amon)가 되어”(잠 8:30) 여기서 “amon”이라는 단어는 눈금이 매겨진 모델, 즉 장인이 건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표준자와 같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말은 지혜가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조성하실 때 그분이 작업하시면서 이용하셨던 표준자와 같았다는 것이다.¹⁹⁾ 지혜자의 증거에 따르면 우주적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드러난 그분의 속성에서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연의 인과 법칙, 법칙들, 경계들, 자연 질서의 전반적 구조를 만들어 낸 장인(craftsman)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²⁰⁾

지혜가 모든 자연 현상의 질서를 구성하는데 관여하였고, 이를 분별한 지혜자는 자연의 법칙과 함께 매일의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관련된 지혜구조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잠 8:31). 예를 들면 일과 관련된 것(거래, 돈, 소유), 언어 생활(거짓말, 약속과 다툼), 상호 관계적 측면(결혼 내의 성적인 조화와 정절, 자녀 양육, 우정과 이웃관계), 도덕적 행동(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의와 악함) 이외에도 권위, 정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윤리적 지식과 기술들을 발견하였다(잠 8:32-36). 지혜문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 표현은 달리해도 같은 목소리로 지혜자가 온전함, 의, 적합함에 중점을 둔 윤리적 내지 공동체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지적하고 있다.²¹⁾ 지혜자는 의미 있는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런 체험과 관찰을 통해 어떤 행동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어떤 행동은 나쁘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²²⁾ 체험을 통해 발견된 진리에 대한 확고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혜롭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²³⁾

지혜의 말씀들은 인간 행동과 인간 관계적 역동성의 측면을 포

합하는 온전한 삶을 위한 일반적 원리를 담은 풍성한 자원이 된다. 지혜자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하고 축복된 삶을 위해 그분의 피조 세계에 부여한 사물의 질서에 일치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대한 인식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원리들에 조화를 이룬 삶을 살게 하고, 지혜의 말씀들은 그 질서가 추구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온전한 삶을 위한 지혜와 기술은 자연과 인간을 운영하는 우주적 질서에 부합하는 것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피조된 방식을 저버리거나 그에 거슬리는 행동은 피조물의 기능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왜곡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죄와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현실은 인간이 질서를 깨닫는 과정에도 장애를 주고 더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한계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혜문서는 창조물의 선함과 함께 타락함이라는 주제를 “어리석음과 악함” 그리고 “지혜로움과 선함”이라는 용어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금언적 요소를 가진 잠언 이외에 다른 형태를 띤 욱기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들은 현실에 대한 역설적 본질과 고통과 불의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학자들은 역질서(counter order)라고 표현하면서 잠언에서 보여주는 질서와는 다른 성격이 있음을 설명한다.²⁴⁾ 비잠언적 지혜문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에 있어서 신비를 보여주는 탐구적이고 기묘하고 사색적이며 위험을 무릅쓰는 듯한 성격을 보여준다.²⁵⁾ 이런 또 다른 지혜문서의 성격은 고통이나 불의 또는 허무에 대해서 단지 지혜가 체험과 관찰이라는 요소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혜문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일부 상담학자들이 지혜문서를 근거로 해서 심리학과 기독교, 또는 상담과 기독교의 통합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²⁶⁾ 이들은 말하길 지혜문서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관계를 조명해 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삶의 고난, 허무, 일상적 삶과 관계 역동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일반계시적 입장에서 펼쳐지는 학문적 접근 방법과 그 산출 결과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정리하면 구약의 지혜 신학은 궁극적으로 창조에 대한 우주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혜문서는 창조에 동참하면서 이 세상에 녹아든 우주적 지혜구조의 관찰과 묵상으로부터 피조 세계가 지혜롭게 운영되는 질서와 온전한 유지를 위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관찰과 실증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현대 과학의 연구가 희미하고 제한되지만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하나님께서 그의 작품을 통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는 사람에게 도달한다.²⁷⁾ 이렇게 창조질서가 근본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자연과 일부 학문 이해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을 자연 과학이 아닌 가치가 더욱 밀접하게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사회과학이나 인문 과학의 영역에 적용할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다르게 된다. 창조의 법, 다시 말해 일반 계시의 인식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무엇보다 사물의 창조적 구조가 타락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인간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고 모호해 졌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인식 능력에 있어서도 사회, 인문 과학과 같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죄로 인해 부패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쟁점 사항이 된다.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지혜자를 통해서 들어본다.

2) 지혜자를 통해서 본 통합의 한계성

첫째, 지혜의 확실한 전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29:18) 라는 잠언기자의 말씀과 같이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특별계시에서 시작되고 그 계시를 주신 분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훼 (Yahweh)라는 말이 잠언과 욥기에 87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²⁸⁾ 이는 지혜의 획득이 특별계시로부터 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지혜문서와 애굽 및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간에 공통적인 표현이나 내용이 있다는 것이 일반계시만을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

다는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통하여 비슷한 내용을 배우고 진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방의 지혜들은 세상의 궁극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반면에 이스라엘의 지혜에는 특별한 자원이 되는 계시된 지식이 첨가되어 있었다.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더 나아가 구원 사역의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험의 대상인 이 세상에 궁극적 의미를 결코 부여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지혜가 애굽의 지혜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가 스바 여왕의 지혜와 일치하게 보이는 것은, 그 지혜들이 궁극적인 의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차적인 직접적 의미의 차원에서 비교할 경우에 그런 것이다.²⁹⁾ 더 나아가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성경의 지혜문서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과 궁극적인 심판을 강조하는 매우 신학적인 면을 담고 있어서, 이것이 매일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원리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잠 28:13-14, 25, 27; 전 8:11-13). 이것은 사람이 삶 속에서 경험되고 관찰하는 인생의 패턴과는 다른 자원을 제시하는 것이다. Schultz는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문서가 비록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존재에 대한 다양한 면을 드러내 주고 있지만, 사회과학을 통해서 신적 계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명한 보증으로는 볼 수 없다.”³⁰⁾

둘째, 지혜의 기초로서 성경의 지혜자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beginning, 잠 1:7)이며 지혜의 첫 번째 원리(first principle, 9:10)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자신의 삶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바른 위치에서게 되는 것이다. 지혜문서는 잠언에서 18번, 전도서에서 5번, 욥기에서 10번에 걸쳐서 여러 문맥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이 나타나는 위치는 모두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 책들을 쓰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다. 잠언 1:7은 전체 책의 주제로서 언급되어진 것이고 전도서 12:13-14은 전체 책에 대한 논의의 총합적인 요약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전 7:18; 8:12과 비교). 욥기 28:28은 논쟁의 말들 가운데서 계시적인 시각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 말을 적고 있다.³¹⁾ 또한 주목한 사실은 어떤

다른 표현보다도 여호와에 대한 경외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지혜를 연결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fear)는 어떤 공포(awe)의 감정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응답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결과였다(4:10; 8:6). 신명기에서 여호와께 대한 경외는 “그의 계명 준수,” “그와 함께 걷는 것,” “그를 섬기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친근히 하는 것”(신10:12-13; 13:5)과 병행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친근히 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다(10:20; 13:4-5).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배워야 한다(신 4:10; 14:23; 17:19; 31:12-13; 시34:11-12). 이 두려움은 “인간이 땅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활의 모든 면을 위한 지도 원리였다(신 4:10; 5:26; 14:23; 31:13; 잠 23:17).³²⁾ 이렇게 모세 율법에서 다루고 약속하고 있는 중요 주제가 동일하게 지혜문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³³⁾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인들은 시편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헌신한 의로운 자들이었다(34:7, 9).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19:7-1; 112:1; 119:33-38; 57-64).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22:22-23)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33:18; 103:13; 147:11). 전도서 역시 같은 점을 나타내며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고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즉 그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이 된다(전 3:14).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며(8:12), 악을 대적하는 동안 참된 지혜를 취함으로써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7:18).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준수한다. 이것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었다(12:13). 여호와에 대한 경외는 지혜문학에서 지배적인 개념이며 신학적인 원리였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다. **Murphy**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를 중심으로 해서 정의, 이해 그리고 정직 등의 지혜 주제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 의해 율법에 제시된 도덕적 이상과 동일시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⁴⁾ 더불어 여호와에 대한 경외는 신앙의 응답, 순종 그리고 예배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Zimmerli**가 표현하였듯이, 그것은 창조된 세계

를 이해하고 즐기는데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것이었다.³⁵⁾ 이미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그 분의 의도와 뜻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길을 인도할 때 일반계시를 통해 전달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지혜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계시에 비추어 세상의 지식과 명철을 연구하였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호와 경외라는 언약과 신앙의 구조 안에서 활동한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었다. 이들이 세상과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었다. 그 증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고백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삶 속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솔로몬의 배교는 이에 대한 실례가 되고 있다. 과거에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잊게 되자 그의 모든 영화가 쇠하여 버렸다.

일반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사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고 구조로써 시작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과 인간을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학문과 사역을 통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잠 2:5). 여호와 경외가 곧 지혜의 목표이고 종착지이다. 이런 이중 연결관계는 잠언 9:10과 시편 111:10을 비교해 보면 드러난다. 두 구절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시작)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근본(시작)이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다. 잠언 9:10에서는 출발점을 의미하는 테힐라 (tehilah)가 적절하게 사용된 반면에 시편 111:10에서는 “머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레쉬트(reshit)를 쓰고 있다. 레쉬트라는 말은 창세기 1:2에서 시작(태초)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목표나 주요원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여호와 경외는 지혜의 전체 또는 토대가 되며 동시에 지혜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³⁶⁾

III 달는 글

하나님의 이 땅을 섭리하시는 능력과 질서는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 머물러 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지탱하시는 활동이 아니면, 피조 세계는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질서를 운영하시는 면에 대해서 Stob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그 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 그 분 자신의 자취를 남겨 놓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법칙들이라는 인간의 개념들은 단지 하나님의 통상적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게 되는 청사진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⁷⁾ 구약의 지혜자는 섭리 아래 있는 모든 영역의 온전한 회복을 이뤄가기 위해서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 증거 되어진 이러한 질서 구조를 분별하고자 했던 이들이다. 그래서 지혜문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나, 그들의 믿음의 필요성, 구원이 가져다 주는 풍성함 등의 내용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삶과 고난 속에서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 지를 이야기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지혜자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본래 피조된 방식대로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심적 자원으로 여기고 있었고, 단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성경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렘 18:18, 겔 7:26).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계시를 근거로 사역하였고, 제사장은 그들 사역의 근거를 토라의 권위와 율법의 명령에 두었다. 반면에 지혜자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성과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을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으로 간직하고, 이를 원칙으로 삼아 체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한 것을 삶 속에 적용하려 하였다. 즉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방향 지워진 상태에서 공동체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지혜의 권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지혜자의 사역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 구성원들이 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³⁹⁾

부언해야 할 사항은 지혜자 역시 피조물의 타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잠 19:21, 21:2, 28:26). 피조된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Calvin의 입장에 대해서 Schrein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alvin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가졌던 감격이 Calvin 연구가들에 의해서 잘 정리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감격이 만물의 본성적 부패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Calvin의 견해에 따르면 만물은 질서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 피조물의 본성적 성격 (악과 죄)은 질서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세계를 통해 인식하는 그 위대한 질서를 보존하게 한다. 만물의 유지는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달려 있다.”⁴⁰⁾

일반계시와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성에서 볼 때, 일부 신학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를 근거로 일반계시를 분별하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나 특별계시의 도움 없이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창조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특별계시와 같은 수준에서 계시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신학은 인간이 특별계시에 의한 진리가 없어도 이성으로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¹⁾ 자연신학적 입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창 1:26)으로 구분하고 타락이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Calvin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심하게 왜곡된 인간이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⁴²⁾

Calvin은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일반 사상가들의 유능하고 적절한 통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경솔한 상상”으로서 마치 “그들은 어두운 밤에 들판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아서

번갯불이 일순간 비치면 널리 사방을 보지만 한 걸음도 채 전진하기 전에 빛은 사라지고 다시금 그는 밤의 암흑 속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⁴³⁾ 또한 Calvin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작품을 통한 계시 사이의 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경이라는 도구를 말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노안이거나 흐릿한 눈 또는 시력이 약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을 제시하면 그는 그것이 모종의 책이라는 것이나 알아볼 뿐 겨우 한두 단어나 해석하다가 말겠지만, 그때 그에게 안경이 주어지면 분명하게 읽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혼란스러웠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모아 주고 우리의 우둔성을 흩어 버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함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⁴⁴⁾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의 작업은 구약의 지혜자의 모습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하는 일반계시와 이를 통찰하는 인간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리학이 어떤 제한적인 틀을 가지고 유익한 방법으로 인간에 대해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단지 심리적인, 화학적인, 해부학적인 측면 등에서 본다면 이러한 묘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독특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회복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인간을 묘사한다고 해도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인간에게서 인간됨을 빼앗고 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의 동기, 세계관, 더 나아가 성품, 탈진, 약점, 교만, 편견, 그 밖에도 무수한 연약한 죄성의 요소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자를 둘러싼 상황과 그의 연약함 그리고 왜곡된 전제에 근거한 체험과 연구의 산물은 너무나 쉽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왜곡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상충되어진다. 이런 점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기독교상담이 전제해야 할 사실은 만물과 만물의 질서의 궁극적 근원이시며 영원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알려진 사실들로부터 출발해야만 한

(표 1) 세계관과 통합의 분류

유형	통합 모델	이론적 관계	대표적 학자들
비통합적 접근 유형			
거부 유형	심리학이 신학을 거부	진리의 근원으로서 신학을 인정하지 않음. 통합이 불가능	Albert Ellis, Sigmund Freud B. F. Skinner, John B. Watson
	신학이 심리학을 거부	진리의 근원으로서 심리학을 인정하지 않음. 통합이 불가능	Jay E. Adams, M. & D. Bobgan W. K. Kilpatrick, David Hunt
조정적 접근 유형			
재구성 유형	심리학이 신학을 재구성	초자연적인 요소 제거. 통합은 신학적인 분별이 있는 심리학적인 시스템	Carl Jung, Erich Fromm Rollo May, R. W. Sperry
	신학이 심리학을 재구성	자연과학적 요소를 제거. 통합은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는 신학적 시스템	Morton Kelsey, Leanne Payne J. & P. Sanford, A.A. Group
변형 유형	심리학이 신학을 변형	둘 다 정당성이 있다. 통합은 우선 신학적 자료의 세계관을 거르고 변형필요	William Sargent, Gordon Allport Bernard Spilka
	신학이 심리학을 변형	둘 다 정당성이 있다. 통합은 일단 심리학적 자료의 세계관을 거르고 변형필요	Filter: Larry Crabb Minirth & Meier World View: Gary Collins Mark Cosgrove
비조정적 접근 유형			
상호관련 유형	심리학 과 신학이 서로 수평적 관련	둘 다 정당하다. 통합은 주어진 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인식을 깊게 하는 것.	David Myers, Malcolm Jeeves Bob Larzallere, Donald Mackay John Ingram 자연과학자들
	심리학 과 신학이 서로 연계적 관련	둘 다 정당. 통합은 각 분야의 관련된 자료들을 서로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것	Carter & Mohline Thomas Oden
단일화 유형	심리학 이 신학과 하나 되는 것.	둘 다 정당하다. 통합은 서로 간에 하나된 개념을 찾아 관련시키는 것	

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독교적 신앙과 삶의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혜가 우리의 인격과 세계관에 충만해 있을 때 통합의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림 2)

David G. Myers	Gary R. Collins	Robert C. Roberts	David Powlison	James H. Olthuis
모더니즘	전통적	전통적	전통적	포스트모더니즘
과학	성경과 성령	신학	성경과 성령	개인적 체험
상호관련유형	변혁유형	변혁유형	거부유형	단일화유형
문화의 그리스도	역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문화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문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

* 후 주 *

1)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려는 모임이 1954년부터 시작되어서 공식적으로 1955년에 CAPS라는 학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매해 학술대회를 열어서 기독교와 심리학 또는 상담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6월에도 4일에 걸쳐 아나하임시에서 학회가 개최되었다. "Unveiling Hearts to behold God's Glory," CATS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Psychological and Counseling, June, Anaheim, CA.

2) 기독교 내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포괄적인 안목에서 이론적 통합, 실제적 통합, 내면적 통합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Kyung-Seung Ahn, "An Approach to Integration," *ACTS Theological Journal* 10(2001): 201-216.

3) Eric L. Johnson and Stanton L. Jones, "A History of Christians in Psychology," in *Psychology and Christianity*, ed. Eric L. Johnson and Stanton L. Jon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0), 35.

4) 구약의 모든 지도자들(왕, 선지자, 제사장)과 함께 지혜자의 속성 역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학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지혜의 선생이신지 또는 지혜가 인격화가 되신 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 분과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적 속성이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신약에서의 지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James D. G. Dunn, "Jesus: Teacher of Wisdom or Wisdom Incarnate?" in *Where Shall Wisdom Be Found?: Wisdom in the Bible, the Church and the Contemporary World*, ed. Stephen C. Barton (Edinburgh, Scotland: T & T Clark, 1999).

5) 윌터스는 일반계시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창조의 법을 창조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주재자로서의 행위의 총체라고 규정했다. 이 주재자로서의 행위에는 창조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포함되는데 전통적으로

이것을 일반계시라고 부른다. 창조의 법은 계시적이다. 창조의 법은 지식을 나누어 준다.”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서울: IVP, 2003), 39. 일반계시에 대한 개론적 책은 헤르만 바빙크, 『일반은총론』, 차영배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3)이 있다.

6) 지혜문서 속에 포함된 “지혜”를 지칭하는 단어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첫째, **Hokhmah**는 이론적인 지식이나 철학을 다루지 않고 인생의 기본 법칙들과 도덕적인 행위자로서의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 지혜는 선과 악, 덕과 악덕, 의무와 방종에 대한 바른 구별을 하게 한다. . . . 둘째, **비나(Binah)**는 허상과 실상, 진리와 거짓, 일시적인 쾌락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가치를 지적으로 잘 분별하여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힘을 준다. 이 용어는 어근의 표현상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분석적이고 판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 . . 셋째, **투스야(Tusiyah)**는 건전한 지혜, 능률적인 지혜, 혹은 변함없는 성공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영적이며 심리적인 진리를 꿰어보는 통찰로서 지혜를 말한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초자연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전하는 지혜와는 달리 땅에서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정신의 능력을 강조한다. 이것은 또한 신자의 마음이 활동하는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원리를 늘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글리아슨 아처, 『구역총론』, 김정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534-535.

7) 학자들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종합한 것이다.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헌수 역 (서울: IVP, 2000).

8) 세계관과 심리학의 연계관계에 대해서는 Stanton L Jones의 논문이 유용한 자료가 된다. “A Constructive Relationship for Religion with the Science and Profession of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9 (1994): 186-188.

9) 리차드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8).

10) Eric L. Johnson and Stanton L. Jones, ed., *Psychology and Christianity: Four View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0); Brian E. Eck, “Integrating the Integrators: An Organizing Framework for a Multifaceted Process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5 (1996): 101-115; Kenneth Van Wyk, “World View and Inte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CAPS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Anaheim, CA, June, 2003.

11) 이런 입장의 Olthuis의 대표적 책은 *The Beautiful Risk: The New Psychology of Loving and Being Love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이다.

12) John Carter and Bruce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9).

13) 에만스는 Kierkegaard의 글을 인용해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

까닭은 관찰이란 모두가 단순한 발견 또는 수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종의 창조이기 때문이다. 관찰이 일종의 창조라면, 관찰자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관찰의 대상이 자연계인 경우에는 관찰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 . 반면에 관찰의 대상이 정신세계에 속한 것일수록 관찰자의 내면세계가 어떠한지 하는 점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Søren Kierkegaard, *Edifying Discourses*, vol. 1 (Minneapolis: Augsburg, 1943), 67. 스티븐 에반스, 『기독교 심리학』, 이창국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86 에서 재인용.

14) 바울 역시 창조계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한다. 바울은 창조주에 대해 말하길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행14:17)고 하였다. 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말하기를 징벌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며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롬 1:18-20)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만드신 만물”에서부터 이 지식이 나온다.

15) 성경에서 지혜문서는 보편적으로 욕기, 잠언, 전도, 아가서와 시편의 일부를 지칭하고 있고 여기에 외경을 포함할 경우에 Sirach, Ecclesiasticus, the Wisdom of Solomon을 추가한다. 초기 지혜문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동 지역의 다른 문서들과의 일치 내지 상이점을 구분하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16) Gordon J. Wenham,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Eerdmans, 1985), 252.

17) 지혜문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지혜의 주된 근거가 질서의 개념이고 지혜의 근본적인 전제가 질서에 대한 믿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Gerhar Von Rad, *Wisdom In Israel*, trans. J. D. Martin (Nashville: Abingdon, 1972); James L. Crenshaw, “Prolegomenon,” in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Wisdom*, ed. J. L. Crenshaw (New York: KTAV, 1976).

18) 지혜자는 실제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일관성과 패턴을 찾고, 다양한 자연과 사회 현상 속에서도 규칙성을 발견해서 그 연관 관계를 세워보고자 하였다. Leo G. Perdue, “Cosmology and the Social Order in the Wisdom Tradition,” in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ed. J. G. Grammie & L. G. Perdue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461.

19) 윌티스, 43.

20) Derek Kidner,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Series: Proverb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7), 79.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 플라밍은 “지혜는 우주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으며. . . 인간의 지혜란, 이 하나님의 지혜, 계획, 질서를 알고 자기의 길을 여기에 동조시키는 것이다. . . . 지혜란 신적인 구조에 쫓아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에 윤리적으로 순응하는 것이다.” James Fleming, *Personalities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Scribners, 1939), 502.

21) 이런 성격의 지혜적 측면을 Perdue는 전통적 지혜(Traditional wisdom), Scott은 보편적 지혜(Common wisdom), Crenshaw는 판단적 지혜(Judicial wisdom), Collins는 금언적 지혜(Proverbial wisdom)라고 표현하였다. L.G. Perdue, *Wisdom and Creation* (Nashville: Abingdon, 1994); B. B. Scott, "Jesus as Sage: An Innovative Voice in Common Wisdom," in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ed. J. G. Grammie & L. G. Perdue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399-415; J. L. Crenshaw,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Wisdom* (New York: KTAV, 1976); J. J. Collins, "Proverbial Wisdom and the Yahwist Vision," *Semeia*, no. 17 (1980): 1-18.

22) Roland E. Murphy, *The Tree of Life: An Exploration of Biblical Wisdom Literature* (New York: Doubleday, 1990), 115.

23) James.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Atlanta, GA.: John Knox, 1981), 67.

24) 이에 대한 명칭도 학자들에 따라서 critical wisdom, radical wisdom, theological wisdom, reflective wisdom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A. H. Konkel, "Wisdom as a Way of Knowing God," *Didaskalia* 4, no. 4 (1992): 15-25.

25) Richard Schultz, "Responsible Hermeneutics for Wisdom Literature," in *Care for the Soul*, ed.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Downers Grove, IL.: 2001), 263.

26) Eric L. Johnson, "The Call of Wisdom: Adult Development within Christian Community, Part I and II,"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4 (1992): 85-103; Jerry Gladson and Ron Lucas, "Hebrew Wisdom and Psycho-Theological Dialogue," *Zygon* 24 (1989): 357-376; C. Richard Wells, "Hebrew Wisdom as a Quest for Wholeness and Holin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5 (1996): 58-69; Edward M. Curtis, "Old Testament Wisdom: A Model for Faith-Learning Integration," *Christian Scholars Review* 15 (1986): 213-227.

27) 윌터스, 42.

28) 잠언 8:22-31; 14:31; 17:5; 20:12; 22:2; 29:13; 전도서 3:11; 12:1, 7; 욥기 38-40장.

29) 그레엄 골즈워드, 『복음과 지혜』, 김영철 역 (서울: 성서유니온, 1996), 41-48.

30) Shultz, 264.

31) 윌터 카이저, 『구약성경신학』,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232-233.

32) Moshe Weinfeld, "Wisdom Substrata in Deuteronomy and Deuteronomistic Literature,"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l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274-281.

33) 카이저, 231.

34) Roland E. Murphy, "The Kerygma of the Book of Proverbs," *Interpretation* 20(1966): 12.

35) Walther Zimmerli, "The Place and Limit of Wisdom in the Framework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7(1964): 146-158.

36) 폴즈워드, 91-92.

37) Henry Stob, *Theological Reflections: Essays on Related Theme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1), 24.

38) Kenneth T. Aitken, *Proverbs* (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6), 4.

39) 찰스 R. 멜처트, 『지혜를 위한 교육』, 송남순,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19.

40) Susan E.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Nature and the Natural Order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1), 28.

41) 바빙크, 96-101.

42) John Calvin, 「구약성경주석: 창세기 I」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역(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5), 67-69.

4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상권』,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II.2.18.

44) Calvin, 『기독교 강요: 상권』, I.6.1